

창세기 36장 에서의 자손

1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헷 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3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웃의 누이이다. 6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짐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7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 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8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 산에 자리를 잡았다.

- 36 장은 에서 후손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는데 에돔은 '붉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에서의 피부색이 붉은 것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5 장 25 절). 에서에게는 세명의 아내가 있었고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그 가족들은 야곱의 가족과는 떨어져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남쪽에 있는 세일 산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세일은 '털' 이란 뜻으로 에서와 관련된 또 다른 이름입니다.
- 19 절까지는 에서 후손의 족보이고 20 절부터 30 절까지는 세일산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던 원주민, 호리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43 절에서 종족들의 이름이 거주지 이름이 되었다는 설명이 있고, 이 지역의 이름이 에돔인 것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원주민들보다 더 강성해졌고, 나중에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1 절부터 39 절에 나오는 에돔 왕들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 36 장 31 절부터 43 절의 내용은 역대상 1 장 43-54 절에 반복됩니다. 에서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래를 여러 민족의 조상과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17 장 4 절, 17 장 16 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과 형제들

2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열일곱 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3 이스라엘은 늘그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6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꾸 꿈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셔요. 7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9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 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열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23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24 그를 들어서 구렁이에 던졌다. 그 구렁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28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36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 37 장은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순서이지만 실제로 50 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앞으로 벌어질 야곱 자손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다른 아들들과는 구별이 되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었기에 험한 일로부터 열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샘을 더욱 받게 했을 것입니다.
- 요셉의 꿈들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인데, 요셉은 이런 꿈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의 시샘을 더욱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내용들이 여러번 등장합니다. 아비멜렉 (20:3), 야곱 (28:12, 31:10-11), 요셉 (40:5-8) 들의 이야기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답은 교사들에게~)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1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들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6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7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24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27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 38 장에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잠깐 벗어나서, 예수님의 계보에 연결되는, 유다의 후손에 관한 배경이 나옵니다. 1 절에서 유다는 자신의 가족들을 떠나 따로 살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유다가 떠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일과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39 장 이후에서 보는 요셉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 유다의 맏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고 둘째도 동일한 이유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고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당시에 '형사취수'의 관습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중 한 아들인 베레스는 나중에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먼 훗날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